

## A-1 경막이식술을 이용한 부착치은의 증대

김동환\*, 허 익, 박준봉, 이만섭, 권영혁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부착치은의 폭경을 증가시키며 부가적으로 구강전정의 깊이를 깊게하기 위하여 유리치은이식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유리치은이식술은 술식의 성공률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공여부를 위한 수술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고 치유후 켈로이드양상을 띄는 문제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공여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1973년 Filicori와 Calandriello, 1981년 Bartolucci가 동결건조경막을 이용하여 시술하였으며, 1978년 Neacy는 공막을, 1975년 Rubenstein 등이 감마선조사 동종유리치은이식술을 이용하는 등, 여러 임상가들에 의해 공여부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본 임상증례는 경막이식술을 통한 부착치은의 증대를 목적으로 시술하였으며 이는 유리치은이식술에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공여부 수술을 배제하고 치유후 보다 심미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 임상증례

23세의 여성환자로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치주과에 내원하였으나 하악견치와 소구치부위에 각화치은이 부족하여 예방목적으로 각화치은의 폭경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본 술식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공여부 수술부위를 배제하여 술후통증을 경감시키고 술후에 심미적인 결과를 얻고자 본 술식을 시행하였다.

#### 증례 I

Tutoplast® Dura를 이식.

술후 32일에 생검하여 현미경소견을 관찰

#### 증례 II

Lyodura®를 이식.

술후 75일에 생검하여 현미경소견을 관찰

증례 I, II에서 임상적인 치유양상은 술후 약 7일경에 이식된 경막의 표면이 흰색으로 나타나며

술후 약 14일경에는 붉은색으로 변화하며 술후 30일이 경과하면 임상적으로 정상적인 소견으로 보이며 주위조직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현미경소견으로는 Tutoplast® Dura 이식술후 32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피돌기가 거의 관찰되지 않고 결합조직내 교원질섬유의 주행방향은 상피부근에서는 상피조직에 평행하게 배열하나 하부 쪽으로 갈수록 불규칙한 배열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Lyodura® 이식술후 7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피돌기의 형성이 명확하고 거의 정상적인 조직소견을 보여 주위 조직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막이식술은 부착치은증대를 위한 유리치은이식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